



# 젠더이슈 Gender Issue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이슈 분석

2021년 제15호

## 놀이중심·아동중심 보육환경을 위한 첫걸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그 효과는?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아이들이 놀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해요!”

“아이들끼리 다투고 닳을 때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줄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우려보다 더 잘 놀 수 있도록 보육과정 계획을 해요!!”

“2021년 7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서울시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전문보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이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에서 수신동의 내역을 거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06939)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대표전화 02-810-50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서비스현장 바로가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ot line 02-810-540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권경영

# 놀이중심·아동중심 보육환경을 위한 첫 걸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그 효과는?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영유아-교사간 긍정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인지, 사회성,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사 1명이 담당해야하는 영유아 수가 많으면 양질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육정책 방향에서 놀이중심·영유아중심이 강조되면서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편과 더불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조적 조건, 특히 교사대 아동비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실질적으로 놀이중심·영유아중심 보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놀이 환경의 적절성,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의 0세반과 3세반 110개소를 대상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교사,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어린이집 적정 인력배치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참여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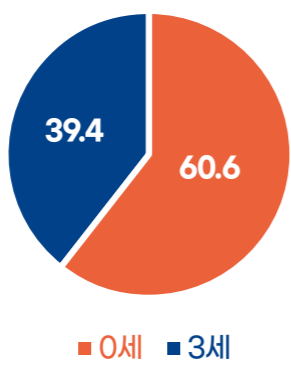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원장 94명, 교사 92명, 양육자 425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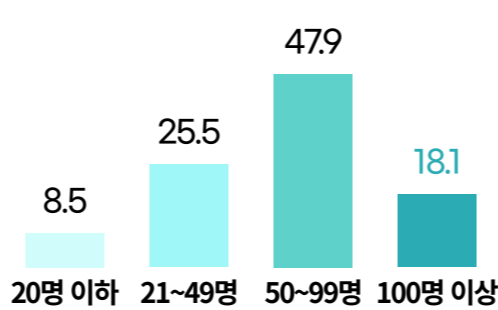
**조사기간** | 사전조사 2021. 6.27.~7.2. 사후조사 2021. 9.30.~10.8.

###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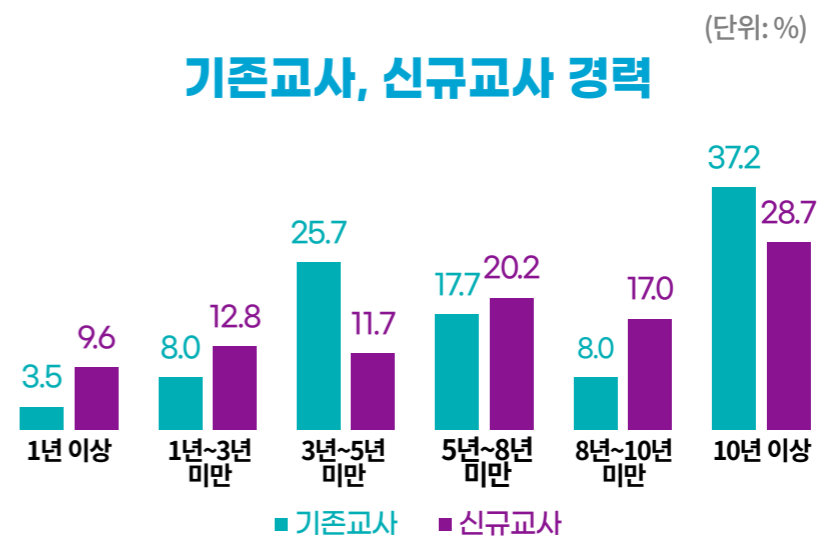
참여 연령반



어린이집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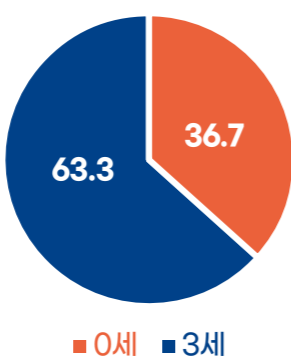


기존교사, 신규교사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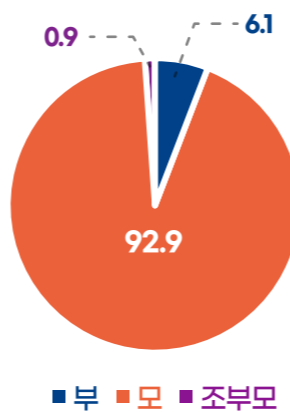


### 양육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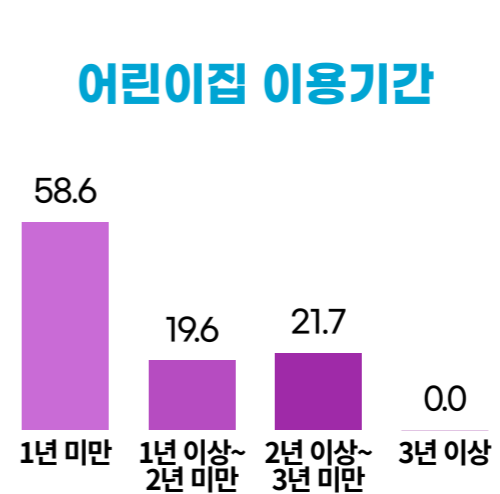
자녀 연령



영유아와 관계



어린이집 이용기간



\* 본 자료는 조막래·김송이(2021)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2021. 12월 발간예정)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보육의 질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은 양질의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OECD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영유아교육·보육(ECEC)의 가장 중요한 질적 기준으로 강조함. 그 이유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 경우 아동발달 및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OECD, 2018)
- 또한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영유아와 양질의 상호작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교사 대 아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표1 참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력배치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어 옴

<표 1> 국가별 교사 대 아동 수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한국	1:3	1:5	1:7	1:15	1:20
영국(스코틀랜드)	1:3	1:3	1:4	1:8	1:8
아일랜드	1:3	1:5	1:6	1:8	1:8
핀란드	1:4	1:4	1:8	1:8	1:8
노르웨이	-	1:3	1:3	1:6	1: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1,174개소 확충하였으며, 양적 확충 이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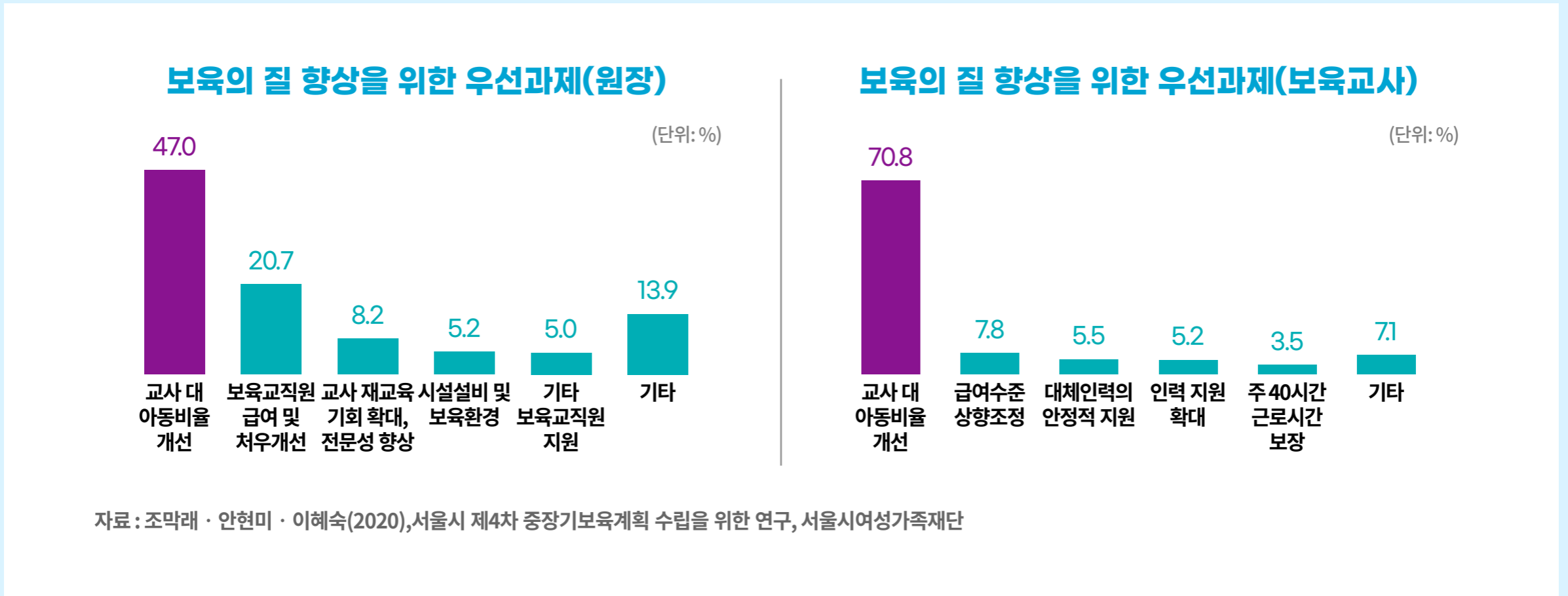
####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개요

**참여대상**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총 110개소(0세, 3세)

**실행기간** | 2021.7.~2022.12.

**지원내용**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0세반 1:3→1:2, 3세반 1:15→1:10

- 2020년 서울시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 꼽힘(원장조사 47.0%, 보육교사 조사 70.8%)



## 시범사업 성과 1: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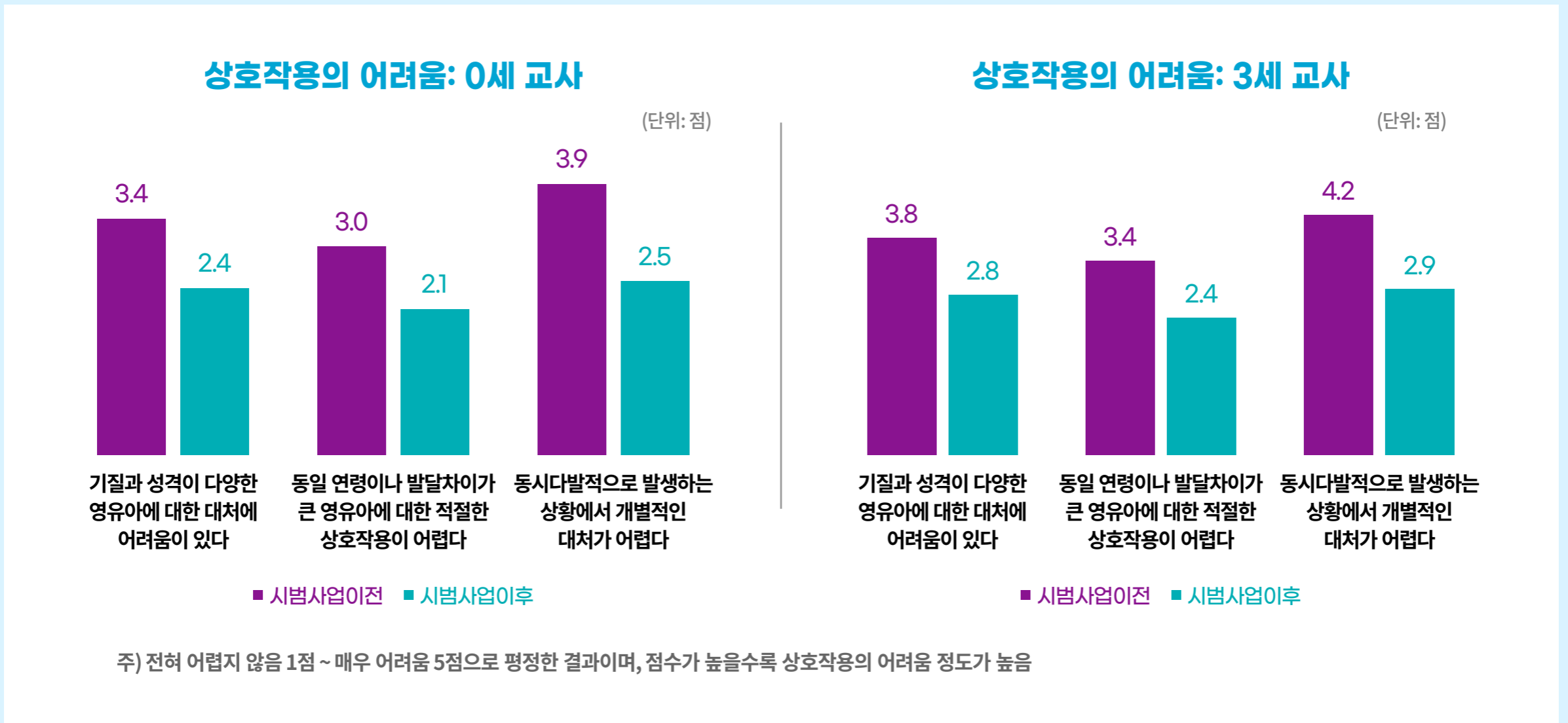
###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의 질적인 변화: 안전중심 → 놀이 중심

- 심층면접 조사 결과 교사가 혼자서 담당하는 영유아가 많은 경우, 보육과정 운영 시 아동의 안전에만 집중한 소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 졌으나, 추가 교사가 배치된 이후 안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놀이 중심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안전중심’의 소극적 상호작용	‘영유아 중심’의 적극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번한 돌봄 공백(등하원 지도 시, 화장실 지원 시 등) 및 사각지대 발생</li> <li>• 영유아의 요구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소극적인 놀이 지원</li> <li>• 영유아간 갈등상황 발생 시 감정적 공감 불충분</li> <li>• 보육과정 계획 시 동적 활동계획에 소극적 (준비, 실행, 정리 시 인력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지원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li> <li>• 영유아의 개별요구에 충실한 놀이지원 (실질적 놀이중심 교육 가능)</li> <li>• 영유아간 갈등상황 발생 시 교사 2인이 동시에 충분한 정서적 지원 가능</li> <li>• 보육과정 계획 시 다양한 동적 활동 계획 (업무분담, 다양한 활동 계획 가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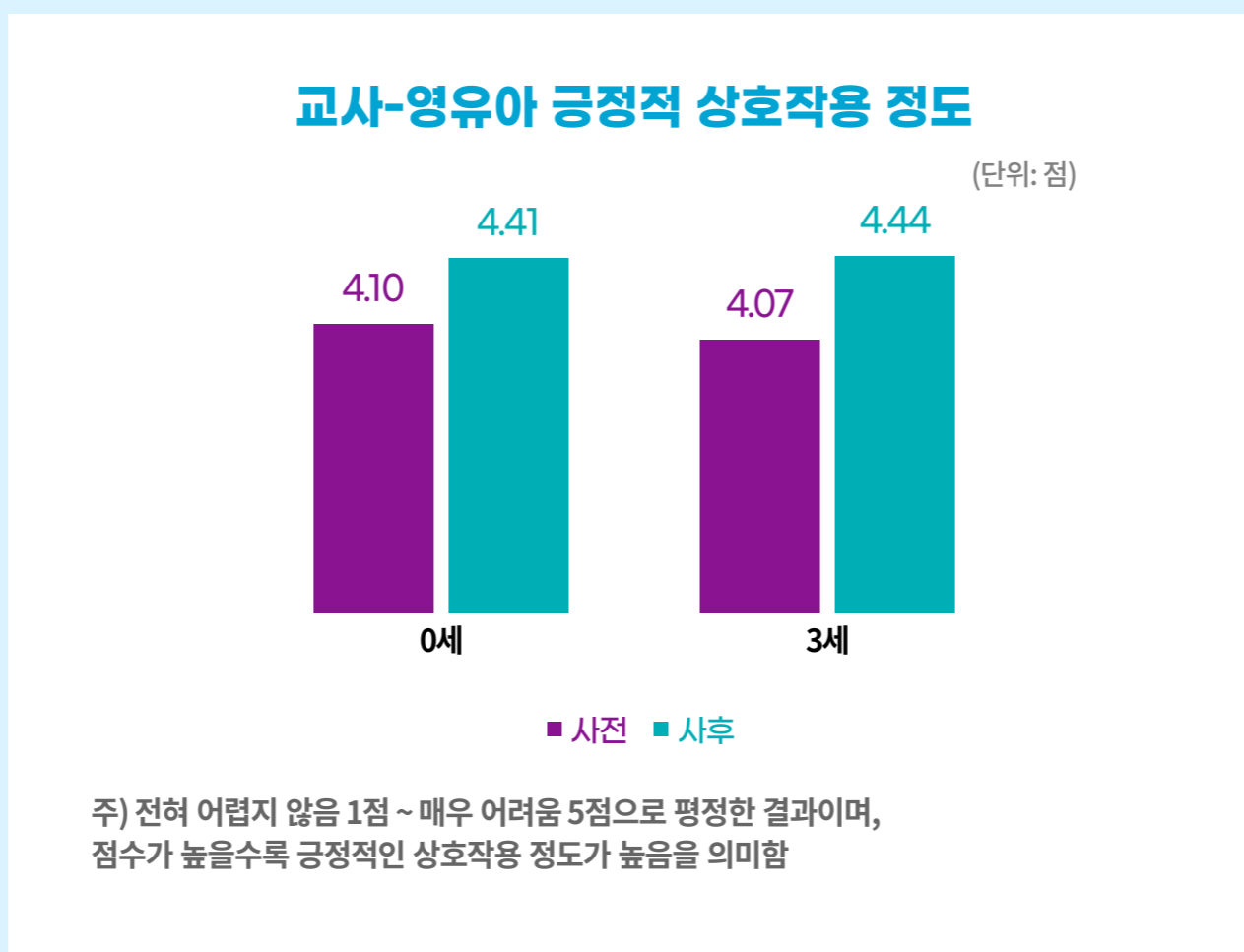
## 시범사업 참여 후 교사-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 감소

- 보육교사들은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다양한 영유아 대응의 어려움’, ‘동일 연령 아이라도 발달차이가 큰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어려움’, ‘동시에 발생하는 영유아의 요구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의 어려움’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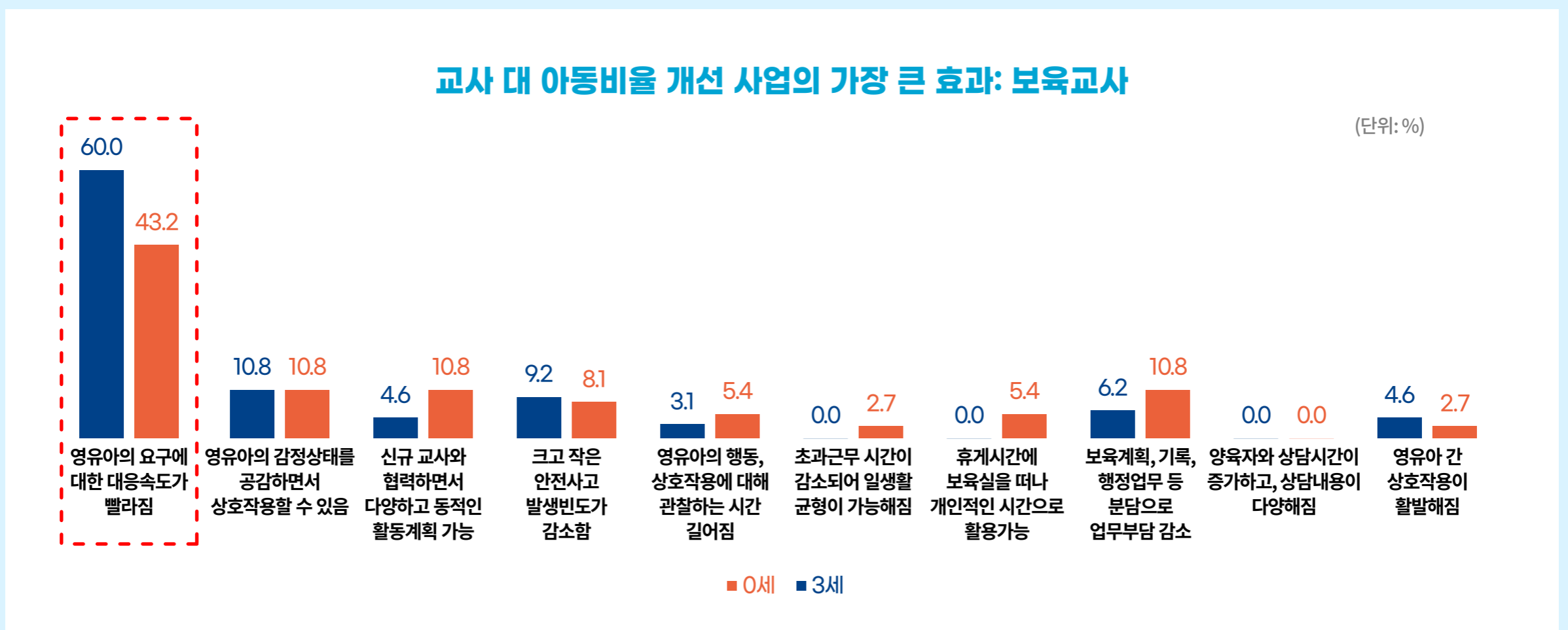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교사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개별요구에 따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 5점 기준 평정결과 영아 4.10→4.41, 유아 4.07→4.44로 긍정적 상호작용 정도 증가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의 가장 큰 효과로 ‘영유아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꼽음

- 시범사업의 가장 큰 효과를 조사한 결과 0세, 3세 교사 모두 “영유아의 요구에 대응속도가 빨라짐”이라고 응답
- 연령별 차이도 확인. 0세의 경우 “영유아의 감정상태를 공감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이 두 번째로 높고, 3세의 경우 “신규 교사와 협력하면서 다양하고 동적인 활동계획이 가능”하고, “보육계획, 기록, 행정업무 등 분담으로 업무부담 감소”를 각각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개별요구에 충분히 반응하면서 상호작용의 양적·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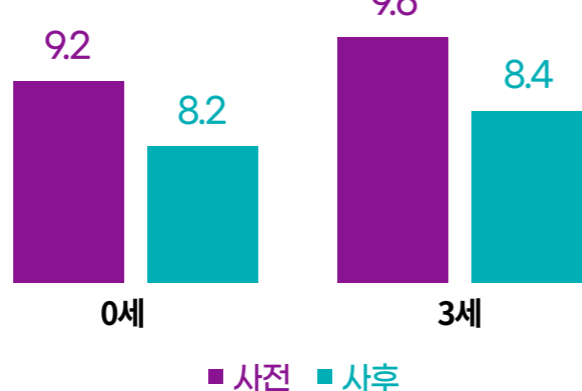
## 시범사업 성과2: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 초과근무 및 기타업무 시간 감소 등 총 근무시간 약 1시간 감소

- 신규 교사 배치로 일지기록, 행정업무 등을 분담하면서 전반적인 근무시간 축소
  - (0세) 1일 평균 노동시간: 9.2시간 → 8.2시간(1시간 감소)
  - (3세) 1일 평균 노동시간: 9.6시간 → 8.4시간(1.2시간 감소)
- 신규교사와의 업무분담으로 초과근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 (0세) 1일 초과근무시간: 52.1분 → 0.5분(51.6분 감소)
  - (3세) 1일 초과근무시간: 99.7분 → 58.3분(41.4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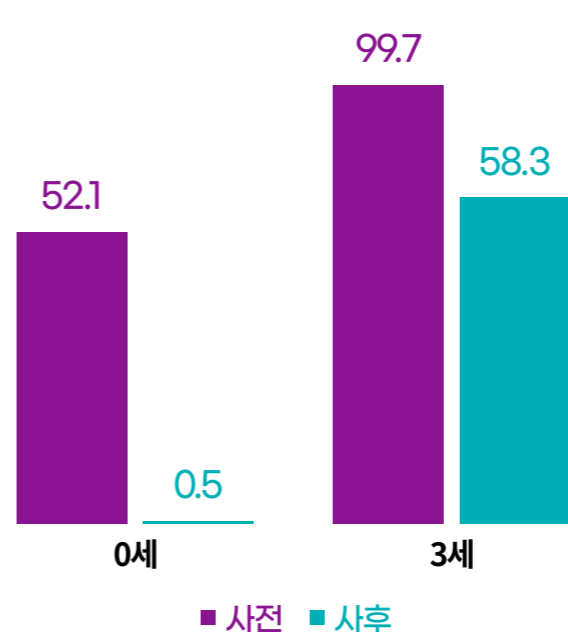
1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1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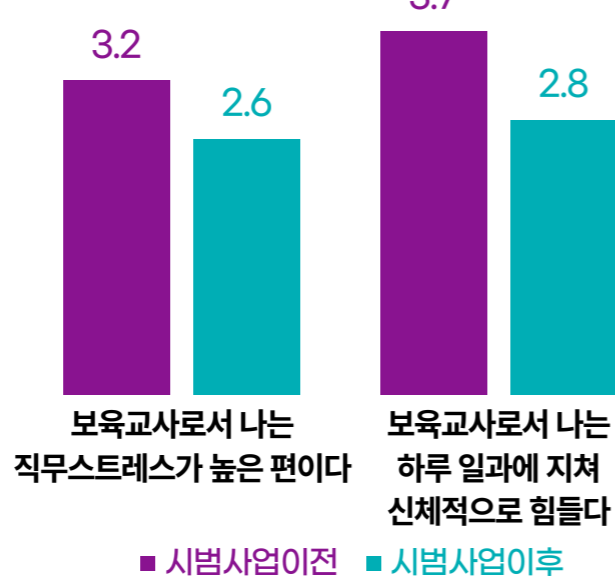


### 보육교사 스트레스 및 업무 피로도 감소

-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및 업무 피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 0세보다 3세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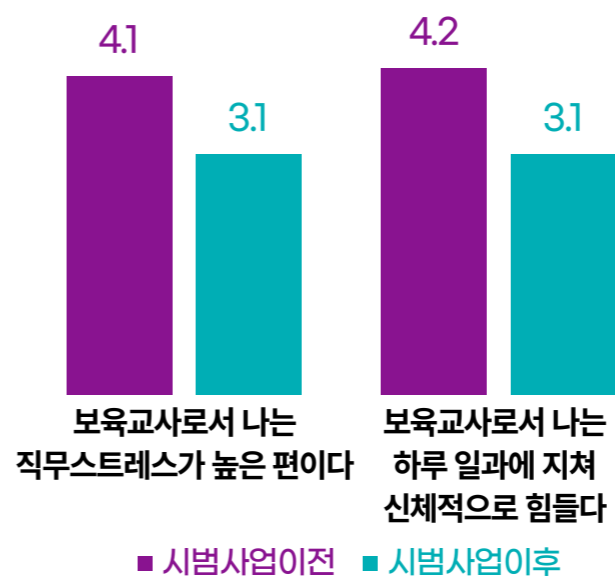
직무스트레스 및 업무 피로도(0세)

(단위: 점)



직무스트레스 및 업무 피로도(3세)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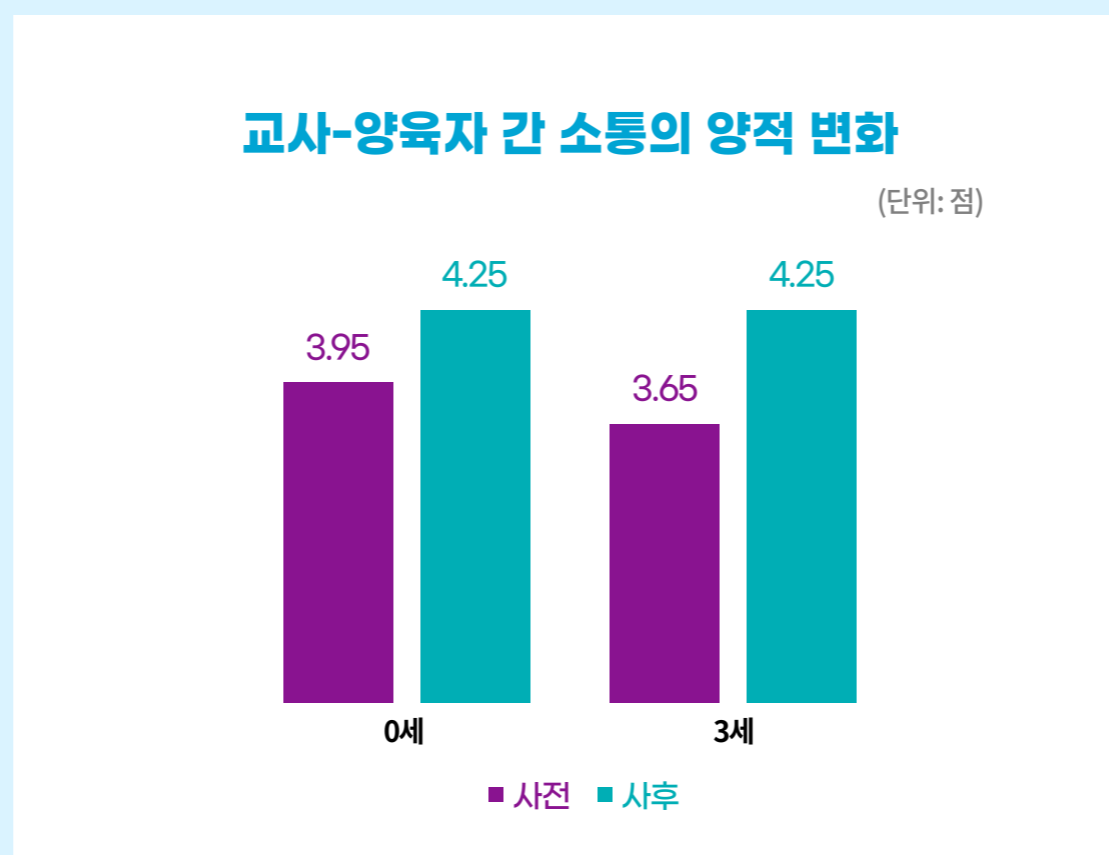
## 보육교사 심층면접 조사 결과 일-생활 균형 개선, 휴게시간 사용의 질적 변화 확인

- 심층면접 조사 결과 신규교사와의 업무분담으로 초과근무가 줄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짐
- 시범사업 참여 전에는 휴게시간 동안 보육일지를 작성하거나 행정업무를 했지만, 시범사업 이후 휴게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

### 시범사업 성과3: 교사-양육자 간 소통 늘고, 보육과정 신뢰 높아져

## 보육교사들은 시범사업 이후 양육자와의 소통이 증가했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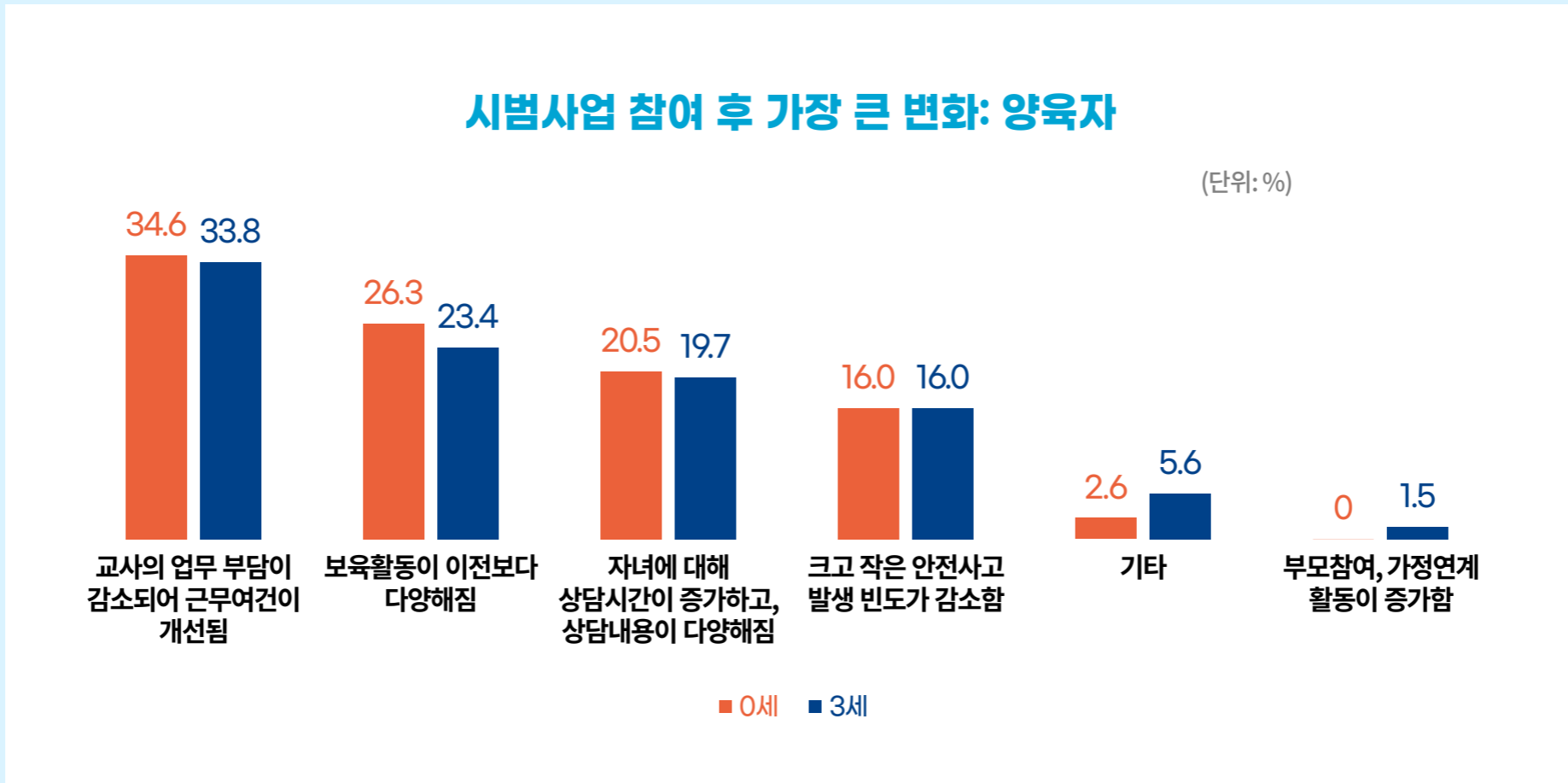
- 영유아 보육 · 교육 시 양육자와 긴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
- 5점 기준 평정결과 0세는 3.95→4.25, 3세는 3.65→4.25로 증가함
-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시범사업 전보다 양육자와 영유아 발달 및 일상에 대한 소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육자들은 시범사업 이후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보육활동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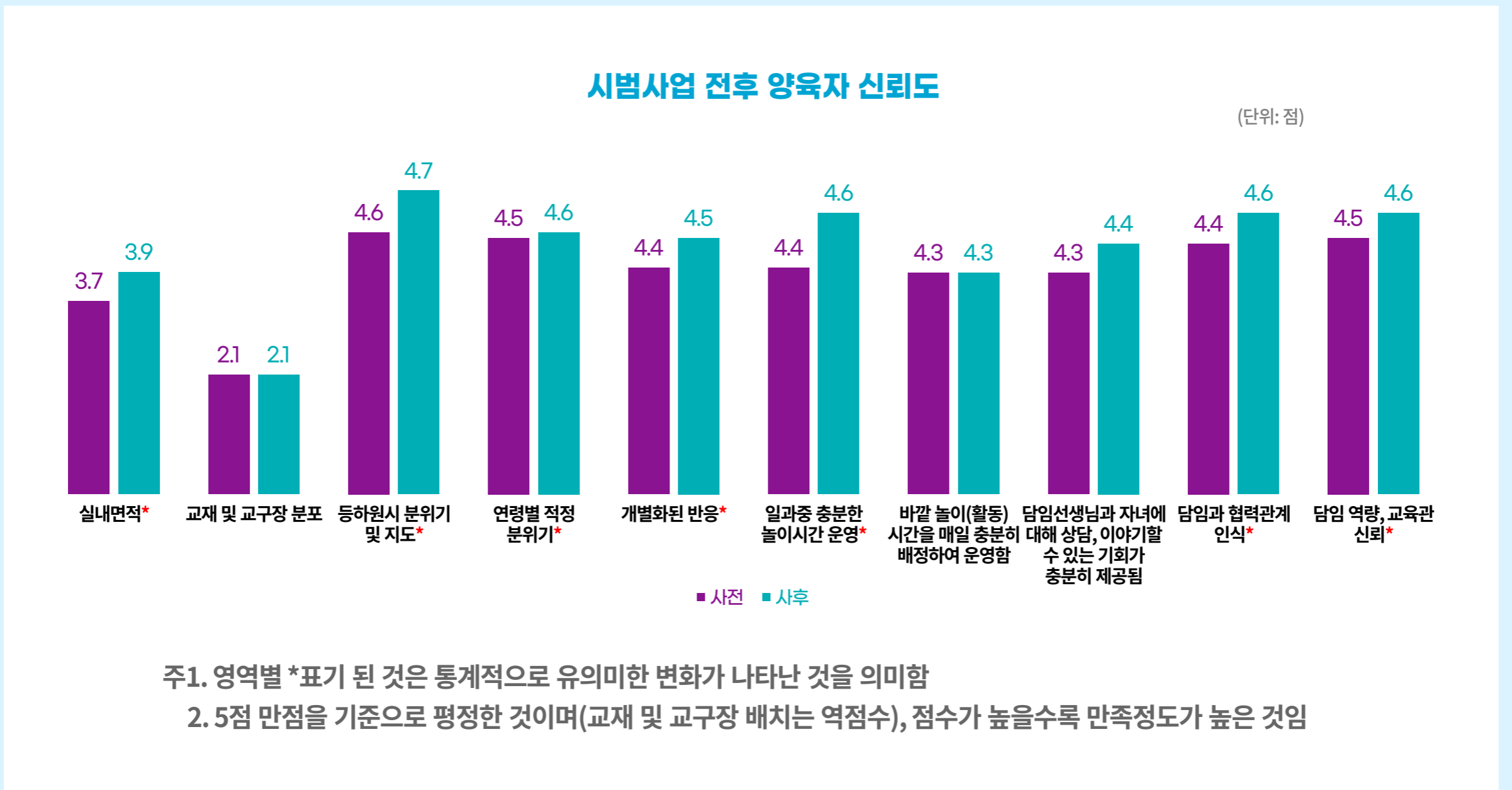
- 시범사업 참여 후 양육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0세와 3세 양육자 모두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어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보육활동이 이전보다 다양해졌다’는 것임. 이어 ‘자녀관련 상담시간이 증가하고 상담내용이 다양해졌다’고 인식





## 시범사업 참여 전 보다 양육자의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 증가

- 시범사업 참여 전후 양육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 특히 만3세의 경우 등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
- 보육과정 및 놀이시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증가(0세, 3세)
- 교사의 역량 및 교육관에 대한 신뢰 증가(0세, 3세)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영유아 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을 위한 적정인력배치 기준 마련

- 전연령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한 정책 확대
- 연령 혼합반, 다인담임체계 구성 등 인력배치 모델 개발

### 영유아 놀 권리 관점에서의 보육공간 개선 지원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면적기준 상향 조정
- 실내외 놀이 환경 진단 및 개선 지원
- 놀이 중심 공간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도입

### 양질의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

- 보육교직원 상호작용 컨설팅 확대
- 보육교직원 놀이중심 학습공동체 지원